

#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4. 6. 10.  
No. 969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심교언  
www.krihs.re.kr

최명식 연구위원  
손은영 전문연구원

##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 주요 내용

- ① (유희 부동산의 공유기반 지역적 관리)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로 인한 유희 부동산 증가에 대응하여 제3의 소유방식인 공유(共有)를 기반으로 한 지역적 관리방안을 검토
- ②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 공유를 통한 지역 부동산 관리의 전제조건인 투명성 확보와 거래비용 감소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참여가 증진되고 운영 주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음
- ③ (블록체인 기술의 기대 효과)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을 통해 디지털 세상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경제(Collaborative Economy)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부동산에 대한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 ④ (국내 정책방안 제시) 현재 국내 도입과정에 있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을 활용하여 지역 부동산을 공유방식을 기반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정책방안

- ①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법인화 여부와 공공의 역할, 효율성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세 가지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 (분산형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1: DAO가 법인화될 경우) 지역 부동산을 DAO가 개별적으로 직접 소유하고 토큰 증권을 발행하여 공유방식의 지역 부동산 관리·운영
  - (분산형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2: DAO가 법인이 아닐 경우) 지자체의 'DAO 지원기구'가 명목상 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실제로는 DAO가 관리·운영하는 방안
  - (통합형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부동산 관리조직'을 통해 지역 내 다수의 유희 부동산을 통합적으로 소유·운영하는 것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
- ② 향후 법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토큰 증권 발행 후 공시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DAO의 법인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01.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

##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 유휴 부동산 증가

저성장과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등으로 다수 지역에서 빈집, 공실 상가 등 유휴 부동산 증가

- 지역에 유휴 부동산이 방치될 경우 주변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고,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 야기
- 따라서 어떤 지역에 유휴 부동산이 발생할 경우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외 많은 도시정부에서 이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음

## 유휴 부동산의 지역적 관리를 위한 공유(共有)방식의 필요성

기존 유휴 부동산은 대부분 1인 또는 소수의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어 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저이용되거나 방치되는 부동산이 발생하고 활용도 어려우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일부 소유·참여자들에게만 전유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초래

- 따라서 기존 국공유(國公有)와 사유(私有)를 넘어서는 제3의 소유방식으로,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인 공유(共有)가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음(최명식 외 2020, 19)
- 공유방식으로 소유되는 부동산은 과도하게 상품화되지 않으며, 단기적 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이용되거나 반대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기보다는 다수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속가능하게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시장 수요의 부족으로 방치되는 지역의 유휴 부동산을 다시 적절히 활용하는 대안적 방식으로 지역공동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함

유휴 부동산은 지역 내의 한두 곳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발생하므로 지역적 관리가 필요하나 세분화된 토지소유권으로 인해 공공에서도 유휴 부동산이 밀집한 지역을 재정비하기 어려운 상황

-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가 진행될수록 어느 한두 개의 부동산만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이익이 됨
- 부동산의 공유를 통해 자산 소유의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여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지역 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증진하며,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선순환 가능

# 02.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와 블록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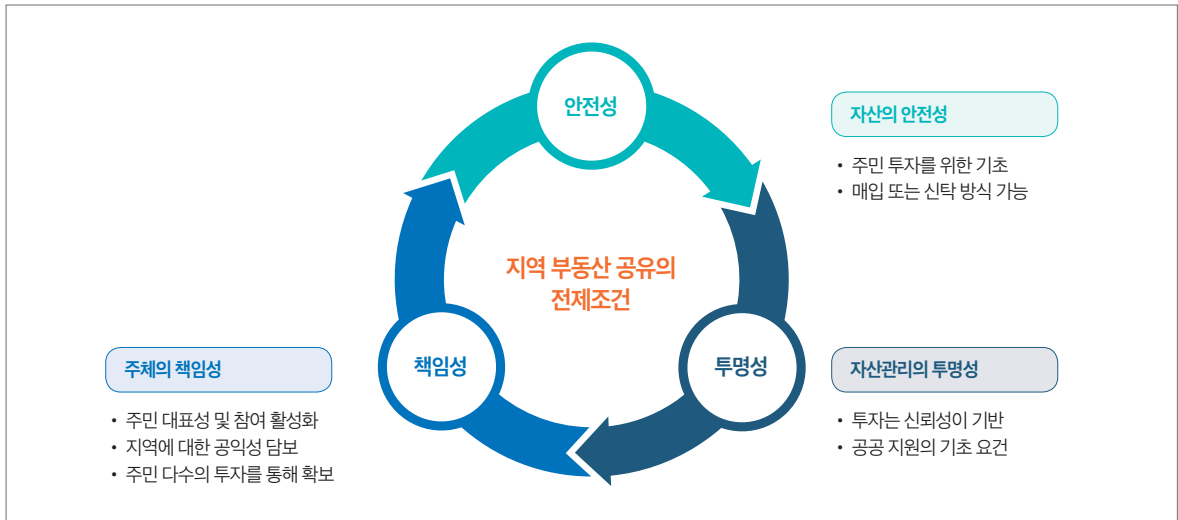
## 공유를 통한 지역 부동산 관리의 전제조건

(안전성) 부동산이 자산으로 안정적으로 소유될 수 있어야 주민들이 신뢰하고 공동으로 투자 가능

(투명성) 자산 관리·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다수 주민의 공동 투자를 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공공의 투자와 지원도 가능

(책임성) 주민 다수의 투자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한 운영 주체여야만 신뢰를 형성할 수 있으며, 다수의 이익을 위한 활동도 책임 있게 추진이 가능

그림 1 지역 부동산 공유의 전제조건



자료: 최명식 외 2018, 116을 바탕으로 재구성.

###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

**(대표성과 책임성 강화)** 지역 부동산의 공유를 통한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나 개인의 접근성이 좋아야 더 많은 주민들의 투자가 가능해져 대표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투명성 확보) 투명성이 확보될 때 소유권의 안정성도 지켜질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수익률이 낮은 곳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성 확보가 최소한의 요건이며, 투명성 확보를 통해 상호 신뢰가 구축될 때 자유로운 투자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소유권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음
- (거래비용 최소화) 거래기간, 수수료 등 거래비용의 급격한 감소는 개인들의 접근성 제고는 물론, 투자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함

**(접근성 강화)**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투자하고 관리하며 배당하는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성 확보, 거래비용 최소화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을 사용하여 위·변조가 매우 어렵고, 모든 참여자와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전자적인 거래와 배당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모니터링이 가능함
-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음

## 03. 블록체인 기술과 부동산

###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과 공동체 협력

**(블록체인의 등장 배경과 의의)** 개인의 가치 창출과 기여가 기관과 플랫폼에 종속된 현실에서 분산원장을 통해 기존의 중앙화로 인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기관들이 중심이 되었던 시장에서 다시 개인들이 주체가 되는 경제체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등장

(공동체 협력 측면)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세상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경제(Collaborative Economy)<sup>1)</sup>를 형성할 수 있으며, 자산 소유권의 디지털화로 인해 개인들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 탈중앙화와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소유권 및 권한 강화로 현재 빅테크 플랫폼이 갖고 있는 독점적 권한을 완화하고, 데이터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다수 참여자에게 투명하고 정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협력이 원활해짐(박정렬, 최새솔 2022, 81)

표 1 블록체인 특징과 공동체 협력 적용(예시)

블록체인의 특징	주요 내용	공동체 협력에 적용할 경우 장점	공동체 협력 적용(안)
탈중앙화	중앙의 신뢰기관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가능	참여주체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현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불변성	거래 정보를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관리	기여 내역 및 활동 정보 등의 위변조 불가 → 정확한 기여 가치 평가	개인의 참여 및 가치 기여 활성화
투명성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되어 쉽게 접근 관리	협력 네트워크상의 공유로 기여 내역 및 평가 신뢰도 향상	기여 내역에 대해 누구나 열람, 참여자 간 상호 모니터링 가능
스마트 컨트랙트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해당 계약이 자동 이행됨	보상 이행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거래시간·비용 절약	기여 가치에 상응하는 디지털 증서(토큰) 발행

(한계와 도전) 현재까지 제도권에 편입된 사례가 많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적으로도 완벽한 탈중앙화를 구현하기 어려워 기존의 독과점이나 불공정 문제가 재현될 수도 있으며(하창동 외 2022, 13-16), 네트워크의 보안에 실패할 경우 책임 소재와 대응방안에 대한 합의도 필요함

- 제도화 사례가 적은 것은 블록체인 데이터와 실물 자산과의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암호화폐의 투기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규제당국의 거부감 등이 원인이 되고 있음

## 부동산 조각투자<sup>2)</sup> 사례

(주)루센트블록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는 7건의 부동산을 상장하여 투자자 모집에 성공하였으며, 상장된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음

- (주)루센트블록은 상장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토큰화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업체로, ‘소유’ 앱에서 부동산 수익증권을 5천 원(최초 가격) 단위로 사고팔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거래 등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음
-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지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서 부동산의 수익증권 발행 허용(발행),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 수행(유통), 금융투자상품 거래소 개설(유통), 매출 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블록체인 내 개인정보의 수정과 삭제의 예외를 인정받는 등 관련 법률의 특례를 받아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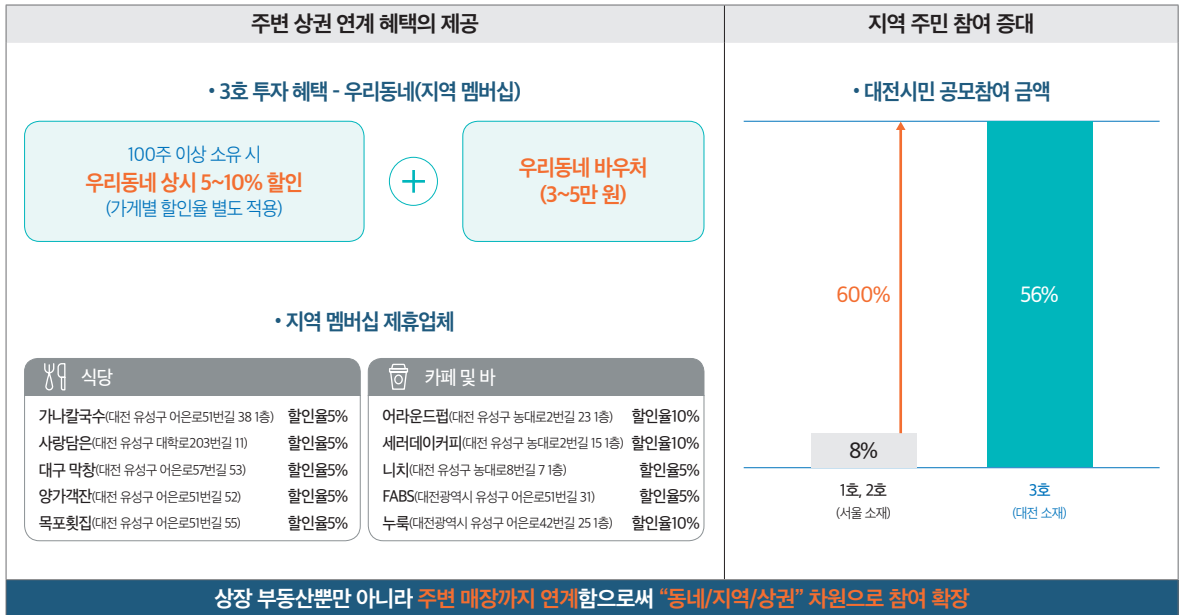
특히 ‘대전 창업스페이스’ 사례는 지역 부동산의 토큰 증권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의 지역을 제한하는 등 특별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지역(대전) 주민이 투자자의 대다수(56%)를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 대전 창업스페이스는 1층에 카페, 2층과 3층에는 청년 창업가를 위한 공유오피스가 입주한 건물이며, 식당 5곳, 카페 및 바 5곳, 상점 1곳이 할인 혜택 제휴를 맺고 100주 이상 소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상시 할인(5~10%)을 제공
- 대전 창업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주)윙윙은 대전 유성구 어은동 지역에서 10여 년간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 창업가를 지원하는 지역관리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 (주)윙윙은 동네 자산화를 목표로 기존의 1인 소유 동네 건물을 매입하여 모두의 자산(Local Commons)으로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 ‘소유’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전 창업스페이스’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였음

1) 협력 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분야의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됨(김정은, 박찬군 2021, 577).

2) 부동산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혹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 즉 고가 자산의 일부 조각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의미함(금융위원회 2022; 이영경 2022, 40).

그림 2 '소유'의 제3호 대전 창업스페이스



자료: (주)루센트블록 2023, 내부자료

### DAO<sup>3)</sup>를 통한 실물 부동산 소유

미국의 와이오밍주에서는 법률을 통과시켜 DAO를 법적인 유한책임회사(LLC)로 인정하였고, DAO가 직접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티 DAO가 운영되고 있음

- 시티 DAO는 시민권을 NFT로 발행하고, 시민권을 구매(취득)한 참여자들에게 소유권을 부여하고 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토지를 구매하여 보존하거나 숙박시설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등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 규모를 만들고자 하고 있음(이유미 2023, 254)
- 와이오밍주에서는 DAO를 법적 주체로 인정하면서 DAO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04.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 ① 분산형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DAO가 법인화될 경우) 법인체로 인정된 DAO가 지역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직접 소유하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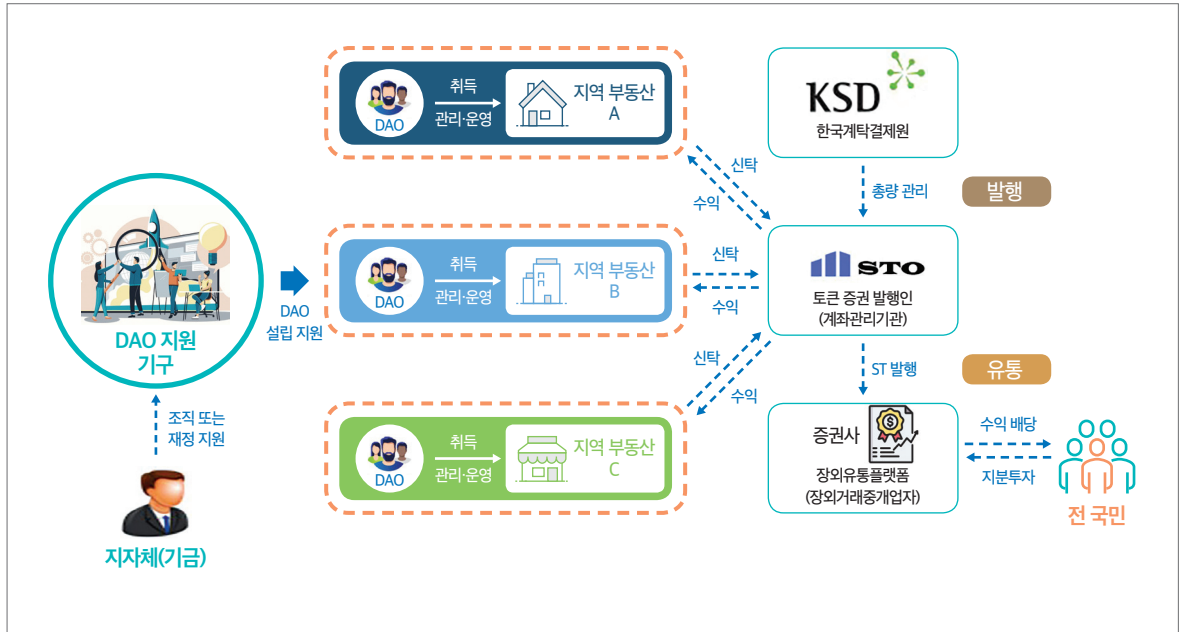
- DAO는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스스로 운영과 관리를 하며, 토큰 증권을 발행하여 전 국민으로부터 지분투자를 받는 등 공유방식으로 관리·운영
- 지속가능한 부동산의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DAO가 부동산의 소유를 위해서 급조된 조직이기보다는, 지역에서 상당 기간 활동해 오던 지역 조직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에 기반을 두고 그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3) DAO는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조직이자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유희적인 온라인 공동체로 계층구조가 없는 것이 특징임. 구성원은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해 미리 결정된 규칙대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큰(Token)을 발행하여 구성원들에게 의결권을 배부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이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있음(하은누리 2022, 1).

**(DAO 지원기구의 역할)** 공공이 설립하는 'DAO 지원기구'가 개별 지역 부동산을 소유·관리·활용하고자 하는 DAO의 설립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아직까지 DAO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개념이며, 실제로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지역 부동산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DAO에 참여자들이 충분히 증가하여 원래 취지대로 분권화된 자율조직으로 성숙하기 전까지는 초기에 시작하는 소수의 인원이 이끌어 나가거나 중앙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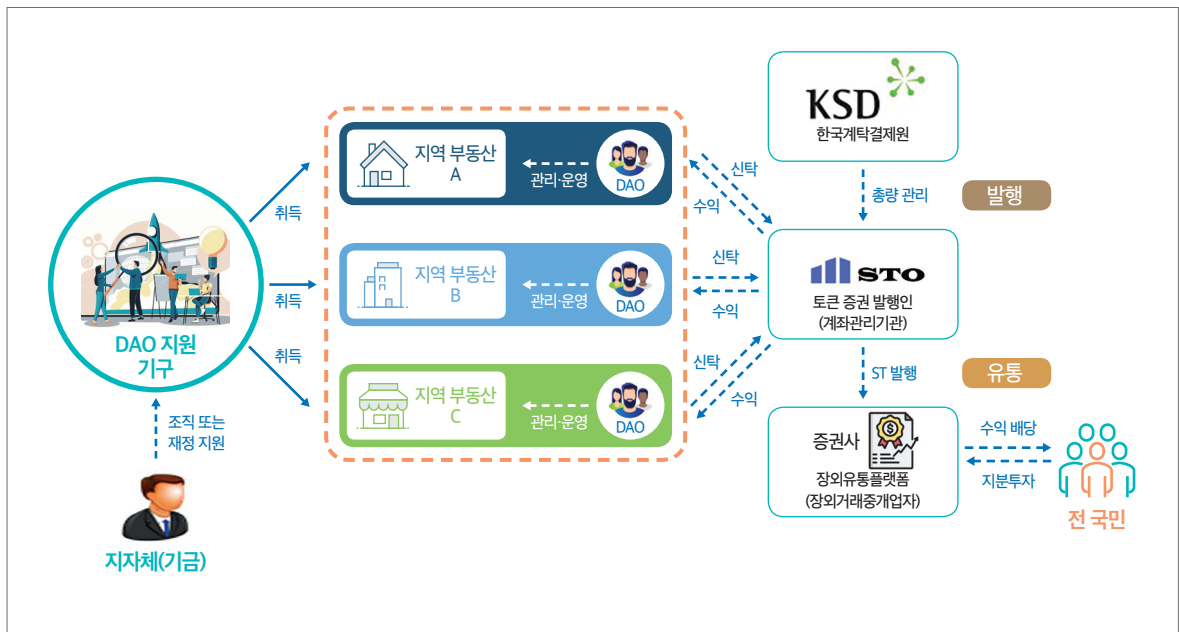
**그림 3** DAO를 통한 지역 부동산 소유 및 관리·운영방안(법인화될 경우)



**(DAO가 법인이 아닐 경우)** 법령 제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DAO가 법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DAO 지원기구'가 명목상 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실제로는 DAO가 관리·운영하는 방안

- 다만 DAO는 법적으로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못하므로 'DAO 지원기구'가 토큰 증권을 발행하지만, DAO의 구성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DAO가 지역 부동산의 소유권에 참여하고 관리·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구조

**그림 4** DAO를 통한 지역 부동산 관리·운영방안(법인화가 어려울 경우)



## ② 통합형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통합형 운영방안)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부동산 관리조직'을 통해 지역 내 다수의 유휴 부동산을 통합적으로 소유·운영하는 것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 증권을 통해 지역의 부동산을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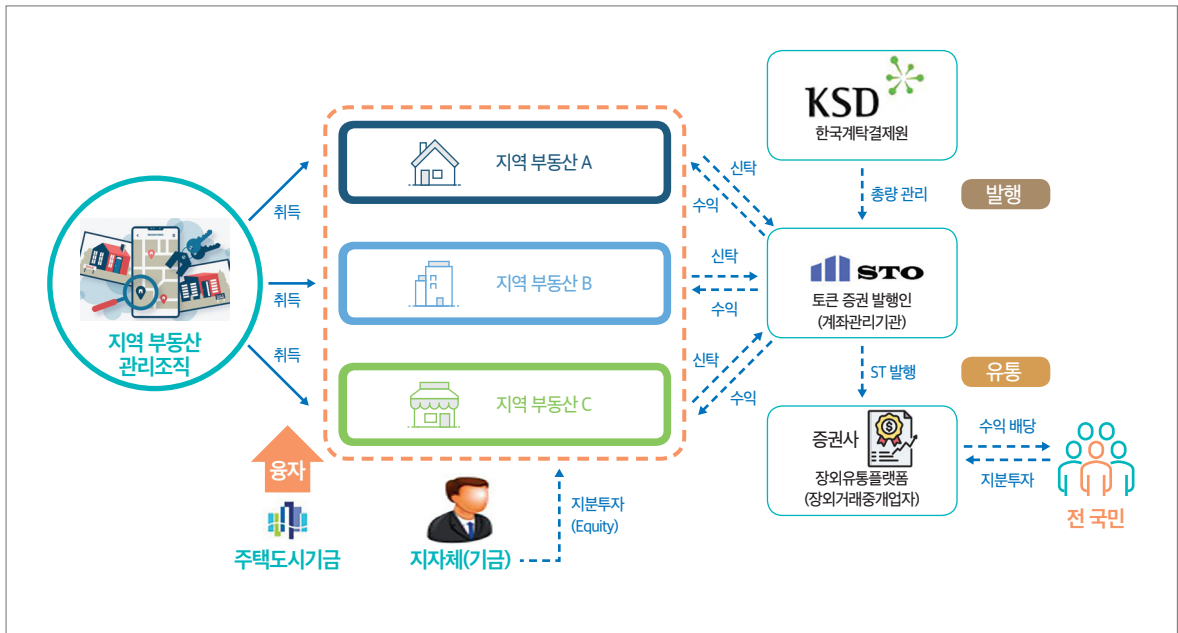
(공공부문의 역할) 공공부문에서는 지역 부동산 취득 시 각종 기금 등의 용자를 통한 지원이 필요

- 지역 부동산 관리조직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각종 기금을 통한 용자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이 투자할 때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필요
- 지자체는 자체적인 기금을 조성하여 개별 부동산에 일정한 지분을 투자하여 투자자인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투자의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단점) 분산형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에 비해 빠르고 광범위한 지역 관리 성과를 얻을 수 있음

- 그러나 조직의 운영과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조직 형태가 비교적 경직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져 혁신적 관리방안이 활발하게 제시되기 어려우며,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음

그림 5 통합형 지역 부동산 관리·운영방안



## 장단점과 향후 과제

(장단점)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 간의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분산형과 통합형 지역 부동산 관리로 창의적·효율적 활용이 기대되나, 아직 일반 국민들에게는 낯선 기술이므로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함

- (분산형) 통합형에 비해 조직 설립 및 운영, 부동산 취득비용 등 공공부문의 재원이 적게 소모되며 공공부문의 역할이 비교적 작으므로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인 시도가 가능함
- (통합형)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DAO를 통해서 활용되기 어려운 부동산도 관리할 수 있어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표 2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비교

구분	분산형		통합형
	DAO 법인화 가능	DAO 법인화 불가능	
공공 설립조직	DAO 지원기구		지역 부동산 관리조직
공공 재정 지원	DAO 지원기구 설립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부동산 관리조직 설립</li> <li>개별 지역 부동산에 지분투자</li> </ul>
부동산 소유 주체	DAO	DAO 지원기구	지역 부동산 관리조직
부동산 관리·운영	DAO		지역 부동산 관리조직 또는 민간
장점	자율성 大, 다양성 大	자율성 中, 다양성 大	통합적 관리 가능, 효율성 大
단점	효율성 小	효율성 小, 복잡성 中	경직성 大, 다양성 小

**(DAO 활용의 기대효과)** 많은 사람들이 주주처럼 의결할 수도 있고, 수익의 분배도 자동으로 투명하게 정산할 수 있어 지역 공동소유의 전제조건인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에 용이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음

**(토권 증권의 제도화 현황)** 지난 2023년 금융위원회에서는 ‘토권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는 최근 부동산 조각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것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에서는 직접 토권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유통을 위해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여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하고자 함

**(향후 과제)**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을 국내에서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제화 추진 내용 이외에도 추가적인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투자자 보호 명문화 필요
- 토권 증권 발행 후 공시를 통해 신규 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투자자의 자산을 분리 보관하여 도산 위험으로부터 분리 필요
- DAO의 법제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참고문헌** 금융위원회. 2022.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4월 29일자. 보도자료. <https://fsc.go.kr/no010101/77728> (2024년 6월 4일 검색).

\_\_\_\_\_. 2023. 토권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월 6일자. 보도자료. <https://fsc.go.kr/no010101/79386> (2024년 6월 4일 검색).

김정은, 박찬균. 2021.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협력경제에 대한 전망. 2021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자료집: 576-580.

(주)루센트블록. 2023. 내부자료.

박정렬, 최세솔. 2022. 웹 3.0의 재부상: 이슈 및 전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7권 제2호: 73-82.

이영경. 2022. 조각투자의 거래구조와 투자자 보호.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99호: 37-75.

이유미. 2023. 다오 DAO. 서울: 위즈덤하우스.

최명식, 김승중, 송하승, 김수진, 홍사흠, 전은호, 박윤미, 오근상. 2018.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자산관리조직 도입 방안 연구: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을 중심으로. 세종: 국토연구원.

최명식, 박소영, 홍사흠, 손은영, 전은호, 이상진. 2020. 지역자산을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하은누리. 2022.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의 현황과 이슈. 자본시장 포커스 2022-07호. 서울: 자본시장연구원.

하창동, 박승열, 오서은, 이강석, 한정수, 정종원, 고주영. 2022. 블록체인 기술의 실물경제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연구. 전남: 한국인터넷진흥원.

• **최명식**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연구위원(mschoi@krihs.re.kr, 044-960-0385)

• **손은영**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eyson@krihs.re.kr, 044-960-0295)

※ 이 브리프는 “최명식, 김승중, 송하승, 박소영, 홍사흠, 이치주, 손은영. 2023.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 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 이 브리프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정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